

길고 오랜 마라톤의 끝

한정희(성가복지 병원 호스피스 병동간호사)

작 년 초여름, 더위가 막 찾아오던 무렵 509호에는 자궁암의 한 아주머니께서 새로 오셨다. 워낙 흔한 병인데다가 계신듯 안계신듯 조용하신 그분의 성품때문에 입원 후 여러날이 지나도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게 되지 못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난 후 우연히 몇 마디 나누면서 터뜨려진 그분의 사연 보파리는 제한된 시간이 미안할 정도로 술술 풀려나왔다.

마산이 고향이신 이○○ 아주머니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으시고 2남 1녀를 키우시기 위해 사채라는 버거운 생계수단을 택하셨다. 사람이 돈을 부리지 못하면 돈이 사람을 부리듯이 사채를 하면서 얻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다.

많은 부도와 배신 속에서 받은 충격에도 남에게 싫은 내색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성격이셨기에 그 상처는 안으로 깊어졌고 그것이 병이 되셨던 양, 급기야는 4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으셨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후 치료를 했어도 재발이 반복되어 현재 16년째 투병생활을 해 오셨고,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겨 왔는데 7년 전부터는 척추로 전이되어 집에서 기어다니며 생활해 오셨단다. 그러나 이러한 투병의 고통보다는 더 괴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의 자녀들에게 도리어 엄마의 병고만을 엮어주고 지금껏 짐이 되어 사는 것이라 하셨다. 그나마 장성하여 결혼한 큰 아들의 이혼으로 아들은 일자릴 찾아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갓 성인이 된 막내아들에게 모든 수발을 받게 되셨다.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막내 아들을 따라 고향을 떠나 동두천으로 이사를 오셨고 마비된 양 다리의 통증 때문에 의정부 성모 병원을 드나드시던 중 그곳 수녀님의 소개로 우리병원에 오시게 되었다. 처음의 낯설고 두려웠던 마음과는 달리 지금은 너무도 편안하고 이렇게 섬리해 주신 하느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셨다.

대부분의 다른 환자들이 당신과 같이 보호자가 없고 말기 상태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소외감과 슬픔을 훨씬 덜게 해 주었던 걸까 아주머니의 몸 상태나 표정은 점차 편안해 졌고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매일미사를 가실 정도까지 되었다. 뒤늦게 가진 신앙도 한창 물이올라 신앙서적이며 테이프 등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받아들여셨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반복되는 투병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이 더 날카로워지고 의존적으로 되기 마련인데도 그분은 항상 감사하셨고, 가능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청하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며 한해가 바뀌었다.

그동안 한방에서 정들었던 다른 환자 분들이 하나 둘 먼저 떠나가셨다. 살아온 배경도, 나이도 달랐지만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의지가 되었던 동지들과의 이별은 그 빈자리가 더욱 크셨으리라. 그러면서 아마도 아주머니께서는 죽음을 점차 현실로 받아들이며 허전함을 넘어선 초연함의 자세를 익혀가시는 것 같았다. 또한 아주머니 자신 역시 하느님의 초대가 점점 가까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감지하셨을지도 모른다.

작년 연말과 새로 명절을 맞으면서 아주머니는 지방 혼련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 막내아들과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큰 아들이 행여나 불쑥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나중에 혼련을 마치고 온 막내아들에게 아껴쓰시던 용돈도 점차 바닥이 났건만 정작 당신이 필요한 부탁은 차마 하지 못한 채 돌려 보내셨다. 그동안 병치레하며 자식에게 병원 빛만 남겨주었다는 죄책감과 더 이상 손 내밀수 없는 생각 때문이었다.

점차 악화되어가는 당신의 상태 속에서 자식들에게 가까이, 자주 위로 받고 싶은 마음과 그러기에 자꾸 서운해지려는 마음, 그러면서도 폐기치면 안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시는 듯 아주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다. 말기암의 전형적인 증세들이 아주머니에게서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물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며 의식이 점차 흐려지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올라온 큰 아들에게 표현 못하는 서운함과 엄마로서의 연민을 그저 말없이 속으로만 품고 계시는 것을 표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왔던 병든 육체를 시신 기증으로 이 세상에 놓고 가시려던 아주머니의 뜻과는 달리 자식으로서 차마 동의하지 못하던 큰 아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뜻에 따라 힘든 동의를 하게 되었다. 쉽게 죽어지지도 않는 모진 목숨이라고 한숨지시던 아주머니의 그 시간이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마침내 다가왔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가는 욕심과 교만, 이기심과 나태 등의 그 많은 허물들을 그분은 절망과 굴욕감과 포기 등의 내적, 외적 괴로움을 겪으며 길고 오랜 투병기간 동안 아마도 정화의 불로 많이 태워버리셨으리라. 하느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이제 때가 다 되어 거의 그 모습이 되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으로 초대되어 가셨다.

이제 이 세상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서운함과 미처 다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을 그곳에서 하느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리라 믿으며 끝으로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고인께 바치고 싶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